



◀ 붉은색 옷으로 길아입은 설악산은 지금 단풍으로 아연갑색이다. 사진은 오세암전경.

# 붉은 물결따라 산사로...

## 설악·오대산 시작 27일 내장산까지 단풍 즐기며 '나'를 찾는다

단풍이 전 걸음으로 남아하고 있다. 내달 초부터 중순까지 우리나라 전역은 말 그대로 '만산홍엽'이 될 것이다. 13일 절정을 맞은 설악산과 오대산을 시작으로 활악산과 소백산, 치악산이 현재 붉은 색으로 옷을 갈아 입었다. 27일부터는 속리산, 계룡산, 가야산, 북한산, 월출산, 주왕산, 내장산까지 붉게 물들일 것이다.

속세의 번잡한 일상을 훌훌 털고 일어나 어디론가 떠나기 좋은 계절이다. 이러한 때 산사에 들려 앞으로만 달려 온 지난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어떨지, 나를 찾는 짧은 여행"을 떠나보자.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사찰로.

● 백암산 백암사=내장산의 단풍보다 분위기가 있고, 덜 붐비며 사 람들에게 떠밀리지 않는 곳이 바로 내장산 남쪽 백암사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예기단풍이다. 0611392-7502

● 능가산 내소사=600m 전나 무술이 유명한 곳으로 가을에는 단풍이 절정이다. 능가산을 배경으로

들어선 대웅전의 꽃창살과 할아버 지, 할머니 당산나무가 절의 깊은 내력을 말해준다. 0635583-7281

● 설악산 오세암=자장 율사가 644년(신라 선덕여왕 13)에 창건 한 오세암(五歲庵)은 백담사의 산내 암자이다. 뒤로는 관음봉이 병풍처럼 외호하고 오른쪽에는 만경대가 굽어보고 있다. 앞으로는 용야장성 봉이 솟아 기운을 막는 듯 오세암을 안고 있다. 0333462-8135

● 내장산 내장사=내장산 단풍은 웅대한 스케일의 활엽수림에서 절정을 이룬다. 27일부터 11월 5일까지가 올해의 단풍 절정시기다. 내장사 일주문 앞에 펼쳐지는 단풍 터널은 한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터널은 1892년 내장사 스님들이 내장산에 있는 108그루의 아기단풍나무를 캐다 심어 인위적으로 꾸민 것이다.

백팔번뇌를 단풍나무 밑을 거닐며 벗어나라는 길은 배려에서 였다고 한다. 0635538-8745

● 용문산 용문사=현연기념물

30호인 은행나무는 수령 1천1백년의 일나무로 높이 41m, 둘레 14m에 달한다. 1천년 수령의 황금빛 은행 나무(현연기념물 30호)가 주변의 단풍과 어울려 장관을 연출한다. 0311773-3797

● 봉황산 부석사=대표소에서 일주문을 지나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물인 무량수전까지 이어지는 비탈길은 은빛 은행나무 천지다. 노란 은행나무 잎에 단풍이 곱게 물들면 아름다운 단풍길로 변한다. 0546333-3464

● 계룡산 감사=감사 진입로 인 5리 숲길은 봄에는 황매화가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어 장관을 이룬다. '추(秋)감사'라는 명성이 무색하지 않게 단풍일이 아름답다. 0411857-8981

● 월악산 신록사=신라 아도가 창건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신록사는 용해계곡과 960봉을 잇는 단풍길이 한폭의 수채화 그 자체다. 043642-3803

● 가지산 석남사=신라 현덕왕



16년(824년) 도의국사가 창건한 선찰로 1957년 인종비구니가 주지로 부임하면서 비구니 수도처로 자리를 굳혔다. 푸른 노송 사이로 빨갛게 물든 단풍이 사찰 주위에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 052264-8900

● 도솔산 선운사=유달리 붉고 흐드러지게 피는 동백꽃 탓일까, 선운사의 단풍 또한 불타는 듯 화려하다. 고찰 선운사의 기운이 서린 듯 붉게 물든 단풍 일 하나하나 정기를 머금은 듯 그 모습이 단아하다. 특히 선운사에서 도솔암 가는 길에 펼쳐진 단풍길이 아주 좋다. 063561-1422

● 중조산 쌍봉사=쌍봉사의 단풍은 은은하지만 하다. 타는 듯이 붉지 않아도 어느새 발갛게 물들이고 마는 그런 촉촉함을 지녔다. 그래서 인지 더욱 발길을 붙잡고 만다. 0611372-3766 김주일 기자

### 한국관광공사 추천

## '단풍 나들이 베스트 5'

#### 단풍터널, 다양한 식생보존

● 명지산(경기 가평)=형형색색의 단풍나무 터널을 따라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생태보존지역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식생이 다양하고 양호한 보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가평버스터미널 031-582-2308에서 적목행·백둔리행 버스가 다닌다. 승용차는 46번 국도(춘천방향)-청평-가평-75번 국도(목동방향)-목동(북면)에서 화회천-사정리, 김화 화회천 방면 75번 국도-가들기-익근리 입구. 가평군청 0311582-0088

#### 물줄기 따라 여유로운 트레킹

● 가리산·용소계곡(강원 홍천)=단아한 단풍감상과 함께 용소계곡 물줄기를 따라 여유로운 트레킹도 즐길 수 있다. 홍천터미널 033-432-7893에서 두촌행 농촌버스를 타고 역내리에서 내린다. 이곳에서 가리산휴양림 입구까지 5km 정도는 대중교통편이 없다. 승용차는 44번 국도-홍천-인제 방항 약 20여km-가리산 휴양림 표지판-두촌면 소재지-용소계곡. 홍천군청 033430-2544

#### 거울처럼 맑은 담양호도 함께

● 추월산(전남 담양)=울긋불긋한 가을단풍으로 화사하게 단장한 모습이 매력적이다. 산 아래에는 거울처럼 맑은 담양호가 잔잔하게 펼쳐진다. 담양터미널 061-381-3233에서 추월산행 시외버스를 탄다. 승용차는 호남고속도로 백양사IC에서 내려 1번 국도, 15번 지방도를 이용한다. 88고속도로 담양IC나 광주에서 29번 국도를 타고 담양까지 갈 수 있다. 담양읍-추월산 터널. 추월산 관리사무소 0611380-3568.

### 단풍구경 이것만은 알고기자

단풍:기온이 떨어지면서 나뭇잎의 색갈이 바뀌는 현상  
노란 단풍과 붉은 단풍:기온이 떨어지면 나뭇잎 속에 있던 엽록소가 합성을 중지한다. 이때 카로틴 노란 색과 크산토펜(엽록소)과 함께 존재하는 황색의 색소가 드러나면 노란 단풍, 안토시아닌(붉은 색소)이 생기면 붉은 단풍으로 나타난다.  
단풍드는 시기:보통 9월 초순의 기온이 단풍시기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온

이 낮을수록 단풍시기는 빨라진다. 그러나 진행상황은 9월 중순이후의 기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단풍이 산 전체의 2할 가량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 8할 이상 물들었을 때를 절정기로 분류한다.  
단풍이 잘 드는 곳:영지보 다산, 울지보 다산지 바른 곳, 강수량이 적고 기온의 일교차가 큰 곳이 아름답게 된다.

### 단풍여행 상품

답사회	일정	장소	참가비	연락처
옛돌여행	25일(1박2일)	보길도, 미항사	6만8천원	(02)2266-1233
롯데대덕	26일	내설악 단풍 트레킹	2만9천원	(02)3668-8777
한화투어물	27일	계룡산 감사, 논산 꽃감마을	3만8천원	(02)774-3200
지구촌항공	매일(무박2일)	지리산 피아골 단풍, 설진강	7만9천원	(02)3391-3035
터사랑	27일	적상산, 안국사	3만8천원	(02)725-1284
승우여행사	27·29·11월 3일	장성 백양사	3만8천원	(02)720-8311

# 이뭐꼬

성철교의 대표적인 학부 중의 하나, 무엇이든 '이뭐꼬'란 정열을 계속하면 마음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된다는 해미종 담고 있다.

## 몽롱한 세상에 벼락처럼 내리치는 큰스님의 장군죽비

마음을 바로세우는 깨달음과 지혜의 정수를 담은 성철큰스님의 금쪽같은 말씀 모음집  
눈 감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걸을 수 있었는지? 먼지 많은 가을이 어떻게 사물을 바로 비추어 줄 수 있었는지?  
항시 마음의 눈을 뜨고 자기를 바로 보라고 하였던 큰스님의 가르침은 혼란스런 세상 살이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다.

退翁 **성철** 말씀 | 원택 엮음 | 8,500원

시자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시대의 큰스님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1-2

시승무원 기개와 고집으로 일러진 한국선불교의 거목 성철큰스님의 타협이 따랐고 인간적인 모습, 20년간 그분을 모신 권택스님의 눈을 통해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큰스님의 모습을 새롭게 만나다. 판매 저음 1각권 8,500원

TEL: 02)741-1990 www.gimmyoung.com